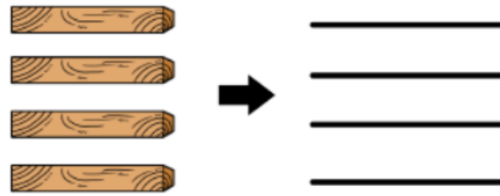


8
-
21

상형문자 ㉠



四

넉 사

四자는 숫자 '넷'을 뜻하는 글자이다. 그런데 四자의 갑골문을 보면 긴 막대기 4개를 그린 𠄎 (넉 사)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갑골문에서는 막대기 4개를 나열해 숫자 4를 뜻했던 것이다. 그러나 𠄎자가 숫자 三(석 삼)자와 자주 혼동되었기 때문에 금문에서는 '숨 쉬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四자를 숫자 '사'로 쓰기 시작했다. 四자는 사람의 콧구멍을 그린 것으로 본래는 '숨쉬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숫자 4로 가차(假借)되면서 후에 여기에 口(입 구)자를 더한 𠂔(쉴 회)자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8
-
22

상형문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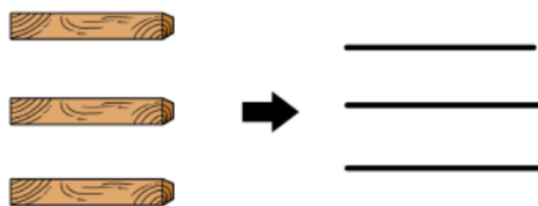
山

메 산

山자는 '뫼'나 '산',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山자는 옥지에 우뚝 솟은 3개의 봉우리를 그린 것으로 '산'을 형상화한 상형문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山자를 보면 가파른 능선이 𠂔 그려져 있어서 한눈에도 이것이 산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山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산의 이름'이나 '산의 기세'나 '높다'와 같이 '산'에서 연상되는 여러 의미로 활용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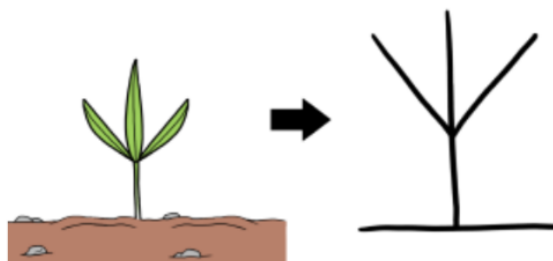
三

석 삼

츠자는 '셋'이나 '세 번', '거듭'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츠자는 나무막대기 3개를 늘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대나무나 나무막대기를 늘어놓은 방식으로 숫자를 표기했다. 이렇게 수를 세는 것을 '산가지(算木)'라 한다. 츠자는 막대기 3개를 늘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숫자 3을 뜻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호의를 덥석 받는 것은 중국식 예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최소한 3번은 거절한 후에 상대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 츠자가 '자주'나 '거듭'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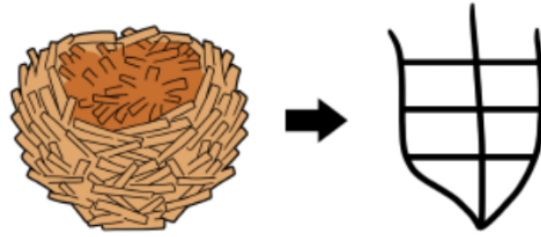
生

날 생

쑤자는 '나다'나 '낳다', '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쑤자의 갑골문을 보면 땅 위로 새싹이 돌아나는 乚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쑤자는 본래 '나서 자라다'나 '돌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새싹이 돌아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쑤자는 후에 '태어나다'나 '살다', '나다'와 같은 뜻을 갖게 되었다. 쑤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본래의 의미인 '나다'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姓(성 성)자는 태어남은(生)은 여자(女)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 ㉠



西

서넛 서

西자는 '서넛'이나 '서쪽'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西자는 𠂔(뒹을 아)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뒹다'라는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西자는 새의 둥지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갑골문에 나온 西자를 보면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새집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새의 형상이 추가되어 지금의 西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西자는 새의 둥지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새집'이나 '둥지'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후에 '서쪽'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木(나무 목)자를 더한 栖(새 살다 서)자나 巢(새집 소)자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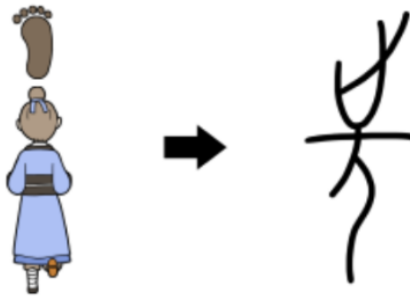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 ㉠



先

먼저 선

先자는 '먼저'나 '미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先자는 𠂔(소 우)자와 儿(어진사람 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先자의 갑골문을 보면 본래는 止(발 지)자와 儿(어진사람 인)자가 결합한 모습이었다. 이것은 사람보다 발이 앞서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先자는 '먼저'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소전에서는 止자가 𠂔자로 잘 못 옮겨졌다. 소전에서의 𠂔자와 止자가 서로 비슷하여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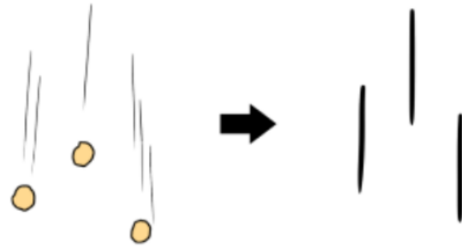
소전



해서

8
-
27

상형문자 ①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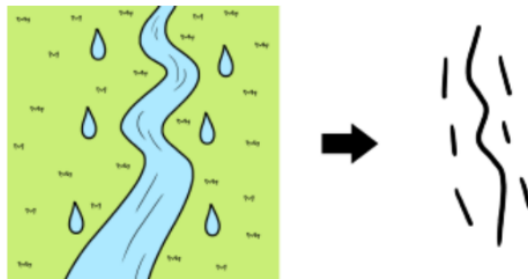
작을 소

小자는 '작다'나 '어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小자는 작은 파편이 튀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작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고대에는 小자나 少(적을 소)자의 구분이 없었다. 少자도 작은 파편이 튀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小자는 '작다'로 少자는 '적다'로 뜻이 분리되었다. 그래서 小자가 부수로 쓰일 때도 작은 것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지만 때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기도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8
-
28

상형문자 ①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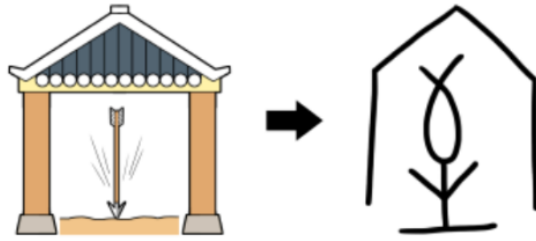
물 수

水자는 '물'이나 '강물', '액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水자는 시냇물 위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水자의 갑골문을 보면 시냇물 주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氺(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물'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水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액체'나 '헤엄치다', '범람하다'와 같이 물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참고로 水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氺 자나 氷자로 바뀌게 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8
-
29

회의문자 ①



室

집 실

室자는 '집'이나 '거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사랑채를 堂(집 당)이라 하고 안쪽에 있는 방을 室(집 실)이라 했다. 그래서 堂은 주로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를 말했고 室은 집주인이 잠을 자는 곳을 뜻했다. 室자는 宀(집 면)자와 至(이를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至자는 화살이 날아와 땅에 박혀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실내에 당도했다는 뜻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8
-
30

상형문자 ①



十

열 십

十자는 '열'이나 '열 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十자는 상하좌우로 획을 그은 것으로 숫자 '열'을 뜻한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十자를 보면 단순히 세로획 하나만이 |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나무막대기를 세워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이렇게 막대기를 세우는 방식으로 숫자 10을 표기했었다. 후에 금문에서부터 세로획 중간에 점이 찍힌 형태로 발전하면서 지금의 十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十자는 부수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모양자 역할만을 할 뿐 의미는 전달하지 않는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